

8 인터뷰-2020 세계일보 문학평론 부문 당선자 김정빈 동문(국어국문학 16)



2020 세계일보 문학평론 부문 당선자 김정빈 동문을 만났다

(사진=서세종 기자)

개개인의 경험, 감정 가장 공감 얻는 평론의 소재

유경민 기자 gmni0313@khu.ac.kr

소외된 삶에 주목하고 그것에 명료한 표현을 부여함으로써 사명을 다하는 것이 문학이라고 합니다. 우리 신문은 경희의 젊은 문학가들로부터 삶을 바라보는 다양한 시각을 짚어보려 합니다. 2020 세계일보 문학평론 부문 당선자인 김정빈 동문(국어국문학 16)을 만나 '경험과 감정에 기초한 평론'에 관해 들어봤습니다.

경희에서 시작된 평론의 길

"주위에서 '학기 초에 싱글벙글 다니는 친구'라고 이야기하고 개인적으로도 학교를 좋아했다"는 김동문은 고등학교 입시설명회 때의 기억으로 우리학교에 진학하게 됐습니다. 후마니타스칼리지 수업을 통해 인문학에 관한 깊은 탐구를 할 수 있다는 말은 그녀에게 인상적으로 남았습니다. 여러 분야에 궁금증을 가지고 있던 그녀는 우리학교 교양수업에서 다양한 지식을 배울 수 있겠다는 기대를 하게 됩니다.

어렸을 때부터 글 쓰는 일을 좋아하고 소설가의 꿈을 갖고 있던 그녀는 자연스럽게 국어국문학과에 진학했습니다. 김 동문은 "교수님들의 다양한 도움이 평론 작성에 큰 힘이 됐다"고 전합니다. 학생들이 궁금해하는 것을 위주로 공부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국어국문학과의 학풍은 그녀의 평론 쓰기에 도움이 됐습니다.

특히 평론에 대해 잘 몰랐던 그녀에게 독립심화학습은 평론을 시작하는 구체적인 계기가 됐습니다. 평론을 많이 읽어보는 것을 목표로 수업 시간보다 편안한 분위기에서 각자 평론을 갖고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김 동문은 "교수님은 이뤄지는 논의를 경청하시면서 우리가 생각한 평론의 방향과 그 배경에 대해 질문을 해주셨다"며 "이 과정에서 생각을 더 구조화할 수 있었다"고 말합니다.

독립심화학습에서 정설적인 평론에 대해 배웠다면 학회에서의 경험은 그녀만의 '감정에 집중하는 평론' 작성 가치관을 갖게 해줬습니다.

다. 김 동문은 "친구들끼리 솔직한 감정을 토대로 시에 관해 이야기를 나누는 일이 너무 재밌었다"며 "좀 있어 보이고 오래된, 학문적으로 인정받는 이야기들을 꺼내는 것이 아니라 정말 내가 가진 경험을 토대로 느끼는 게 더 재밌게 읽는 방법일 수도 있겠다고 생각했다"고 합니다.

경험과 감정에 기초한 평론

경험과 감정에 집중한 읽기가 중요하다고 생각한 그녀에게 평론에 자주 언급되는 어려운 미학 이론, 영화, 신화 등의 소재는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시 이해에 도움을 얻기 위해 평론을 읽는 사람들에게 기존의 평론 소재는 더 거부감을 일으킬 것이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김 동문은 오히려 시가 어렵다는 전제하에 친근하게 이해할 수 있는 것들을 예시로 들니다. 유행하고 있는 드라마, 일상적인 이야기 등 기존의 평론에서 벗어난 소재를 이용합니다.

등단작인 '이 시대의 독법-팔리는 문학에 대한 고찰'에서 사용한

소재 역시 당시 조명받던 '힙합'이었습니다. 시와 소설을 가릴 것 없이 문학을 좋아하던 그녀는 사람들에게 시가 많이 읽히지 않는 일이 아쉬웠습니다. 힙합과 시가 비슷하다고 생각하는 그녀에게 힙합에 비치는 조명과 대비되는 시의 현실은 안타깝게 다가왔습니다. 김 동문은 "힙합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시를 읽기 시작하면 금방 적응하고 재밌어할 것으로 생각했다"며 "이 이야기를 쓸 수 있는 장르가 평론이었다"고 말합니다.

물론 보편적으로 사용되던 소재에서 벗어나 감정과 경험에 기초해 평론을 쓴다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독자 중의 한 명으로서 시를 읽던 그녀에게 사람들의 공감을 얻는 평론을 쓰는 일은 많은 고민이 필요했습니다. 김 동문은 "평론이란 결국 작품이 가지고 있는 가치를 많은 사람이 공감하고 동의하도록 설득시키는 일"이라며 "그 과정에서 기존에 동의된 권위에 대한 이야기를 가져오지 않고 저만의 감상을 이야기하는 일이 평론으로서 가능할까 의문이 있었다"고 말합니다. 그런데도 그녀가 자신의 경험과 감정에 기초한 평론을 계속한 이유는 결국 시를 읽는 것은 개개인이고 개인의 감상을 기반으로 다음과 같이 논의를 하면 감상이 커진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공감을 얻는 평론

개인의 경험, 감정에 기초한 감상에서 나아가 '함께하는 논의'에 대해 생각한 그녀가 가진 문제의식은 '팔린다'와 '읽기 쉽다'로 설명되는 대중적인 글의 문학적 가치입니다. '팔린다'고 하면 부정적인 인식이 많지만, 그녀는 "어렸을 때부터 팬 문화가 많았고 좋아하는 것에 아낌없이 돈을 쓰는 문화가 익숙하다"며 돈을 쓴다는 것은 그 가치를 인정하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또 SNS에서 많은 사람의 공감을 끌어낸에도 '읽기 쉽다'는 이유로 문학에서 배제하려는 움직임에 문제의식을 느낍니다.

과거 그녀가 생각한 영향력을 가진 힘은 권위나 기술이었지만 지금은 '다수의 공감을 얻을 수 있는 능력'입니다. 마음대로 화내지 못하고 기뻐하지 못하는, 감정을 차단하는 현대 사회에서 끊임없이 느끼고 감정을 전달하는 것이 평론가의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김 동문은 앞으로 사람들이 잘 모르는 작가, 출판사의 작품이더라도 유명세와 관계 없이 들어다보고, 작은 목소리를 다수의 공감으로 끌어내는 글쓰기를 하고 싶다고 말합니다.